

21세기와 역경

‘전자 대장경’ 불사 서둘러야

- 1.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 2.역경원은 불교학의 전인차
- 3.디지털시대와 역경
- 4.역경사업 활성화 과제

정부에 예산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CD롬 작업전에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올해 안에 <한글대장경>이 완공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1차 번역의 수준이고, 초창기번역본들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고, 한글화 되었다 하나 여전히 한문 투성이인 형식면에서도 수정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오류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채 설불리 <한글대장경>을 그대로 인터넷

경쟁력의 핵심은 역경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식정보화의 원천이 바로 역경인 까닭이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아무리 급속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해도 역경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또다시 외국



21세기에는 인터넷상에서의 <한글대장경>활용도 활발해질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렸던 전자불전연구소 설립기념 세미나.

고문체 경전 정보가치 줄어 한글대장경 CD롬 작업 필요

에 올릴 경우, 사이버공간에서 <한글대장경>은 이해하기 힘든 단어뿐만 아니라 낱말의 경전으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전으로서의 역경작업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맹이로서의 역경원 역할은 디지털시대가 될수록 더욱 중요하다. <한글대장경>의 정본을 확정된 후에 보다 다양한 검색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적 발전도 이룩할 수 있다. 아무리 첨단 디지털시대라 하더라도 정전으로서의 책의 정신성, 생명성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문체 경전 정보의 가치도 떨어지고, 그것은 바로 문화적 종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백년 이백년후를 내다보며 지속적인 번역작업을 통해 그 내용을 질적으로 향상 시키고, 불교학 분야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그 내용을 채울 역경의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자불전연구소장 보광스님은 "한국불전의 정보화는 새로운 지식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내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역경원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한글대장경>의 개정과 CD롬화 작업 등 디지털화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Current Perspectives: Tibetan Women's Association

Tibetan Women's Association
Bhagsunag Road
P.O. McLeod Ganj 179 219 Dharamsala, Distict Kangra 176 219
INDIA
Tel: 0091-1892-22527
Fax: 0091-1962-22374
e-mail: twa@tibet.com

INTRODUCTION

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 (TWA) was founded on March 12, 1979 in Tibet when the women of Lhasa gathered together in their thousands to protest against the illegal occupation of their homeland. Protecting peacefully outside the Potala Palace, many women suffered brutally at the hands of the Chinese troops. They were arrested, imprisoned, tortured...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티벳 여성협회

“티벳 고유의 종교·문화 지키자” 중국의 무력점령 항거 여성단체

티벳 여성협회(The Tibetan Women's Association)는 1959년 4월 12일 티벳 라사에서 중국의 티벳에 대한 무력 점령에 항거하기 위해 수천 명의 티벳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당시 포탈라궁 밖에서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벌이던 수많은 여성들은 중국 군인들에 의해 야만적인 수모를 겪었으며 또한 상당수의 여성들은 재판도 없이 투옥되어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그 뒤 1984년 해외에 망명중인 수많은 티벳 여성들에 의해 정식으로 재조직되었으며, 인도 및 네팔 등 해외에 36개 지회 등 두 있다.

여성협회는 티벳 고유의 종교와 문화 그리고 티벳 국민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티벳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

1984년 처음으로 세계적인 여성협회 총회인 '다람살라'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티벳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성협회 본부는 현재 '다람살라'에 있는 '맥레오스 간쑤' 지역에 있으며 이곳에서 여성협회가 안고 있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지회 시회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을 조정하고 투쟁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

현재 해외 망명지에서 이미 7곳의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중 3곳이 여성협회로부터 조직관리, 조정 기능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여성협회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복지 부문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티벳·인도 및 해외 망명지에 있는 티벳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과 연대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티벳에서 해외로 망명한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며, 또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숨마저 잃을 위험이 있음에도 티벳의 독립을 위해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협회에서는 보다 열성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외 망명지에서의 그들의 용감성과 결단력을 실현시키는데 경제적 지원과 피난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여성협회에서는 티벳 비구니 스님들에게 임시로 거주할 곳과 음식 그리고 교육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1987년 여성협회에서는 티벳 종교와 문화 부분 사업과 관련하여 '티벳 비구니 프로젝트'(The Tibetan Nuns Project)라는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이 사업은 티벳 비구니 스님들이 티벳 종교와 문화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환경조성 뿐만 아니라 의복, 음식, 수행처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서부터 출발하였다. 요즘은 여성협회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티벳 비구니 프로젝트는 해외 망명지에서 티벳 비구니 스님 500여명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또한 더 이상 여성협회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종말스님의 평생화두 ‘본각진심’”

보조사상연구 발표회 '규봉종말의 도서연구'



보조사상연구회 제3차 선전연구발표회가 2월 26일 서울 법원사 불일문화관에서 열렸다.

보조사상연구회 주최 제3차 선전연구발표회 '규봉종말의 도서연구'가 2월 26일 법원사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 최병현 서울대 교수는 '규봉종말의 선의 분류와 선종사 인식' 발표를 통해 "종말스님이 고려불교에 미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말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종말은 수행자로서의 면모보다는 학자로서 중국 선종의 이론적 통찰에 그쳤다"면서 "보조사님이 화엄을 선수행에 실천적으로 접목시킨데 비해, 종말스님은 실천적인 측면이 약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종말스님이 당대 불교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홍주종에 대한 하략종의 우위성을 강조했다는 지적을 내적으로 일관했던 것은 역사적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서)의 선사상과 돈점관'을 주제로 발표한 연세대 신규탁교수는 "종말스님은 본각진심이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평하고, "본각진심을 인간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이런 입장에서 당시 그가 살던 시대의 유훈,도 삼교를 회통하고, 선교의 일치를 내세웠다"고 말했다. 신교수는 '(원각경대소)에 나오는 9대돈점(頓漸)에 대해 설명하고, 종말스님이 주장하는 수행론은 돈오점수(頓悟漸修)라 강조했다.

'(도서)가 한국불교에 미친영향'을 발표한 해주스님은 '(도서) 한국전래와 각판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보조사님의 (도서) 수용과 보조사에 대

해 발표했다. 스님은 "(도서)는 고려중기 보조사 지눌스님이 즐겨 인용한 이래 한국에서 크게 유통되었다"면서 "지눌스님이 (도서)의 교선일치 돈오점수설을 자신의 돈오점수 정혜승수의 선사상에 도입하여 중국의 오가철종 선종과는 다른 한국선문의 선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또한 지눌스님에 의해 주목된 (도서)가 조선시대 강원의 사립과 이력과목으로 선정돼,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교경수의 한국선종과 학풍을 진작시키는데 교와 선을 통틀어 다른 (도서)의 사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은자 기자

한국선학회, 3~12월 발표회 주제 확정 '禪이란 무엇인가' 심층접근

선의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명당 유정의 선사상', '벽관에 대한 대혜종고의 비판'이며, 10월에는 '선어록의 언어', '(원인론)의 인간관 연구'를, 11월 '선과 경제', '조동오위에 대해', 12월 '근거는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다룬 선사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발표한다.

동국대 교수 종호스님은 "월례 발표를 통해 일반인까지 선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내년부터 21세기의 대안이라 불리우는 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선학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을, 7월에는 '간화·위빠사나 수행의 연관성', '남방선의 수행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9월의 주제는

대각사상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대학사에서 '백운성 대조사 입적 60주기 추모세미나'를 갖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이 '용성스님의 후반기 생애'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광식박사가 '용성스님'에 대해, 양은용교수(원광대)가 '소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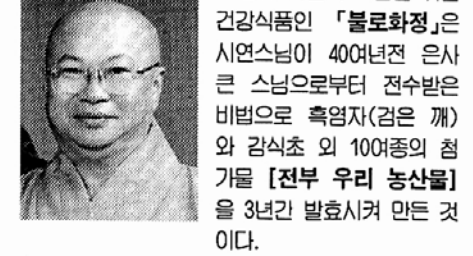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원은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 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 집을 다스림)·치국(治國: 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 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 건강과 장수)·둘째 부(富: 부와 귀)·셋째 장녕(康寧: 편안함)·넷째 유호덕(好德: 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술소소정액(松素素精液)」, 「술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개)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인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 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원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본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형식의 3층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중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니, 건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천리 산 8-4

실버타운 전세안내

구분	비고
2인 1실	전세
1인 1실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 단 임원실 사용 1개월씩, 식대 각자 부담

불로화정 본포